

【서평】

## 김진성 역 『형이상학』 — 고전 번역의 새로운 도전

전 현 상

김진성 역 『형이상학』 출판의 중요성과 의미는 아마도 박종현 역 『국가』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우리는 서양 고대 철학 시기의 가장 중요한 두 철학자의 가장 중요한 두 저서에 대한 원전 번역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역자가 어떤 일을 해낸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중 가장 난해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형이상학』에 관한 유명한 주석서를 쓴 한 서양 학자<sup>1)</sup>의 말을 빌리면, 『형이상학』은 “절망적으로 난해한(desperately difficult)”작품이다. 그리고 실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형이상학』7권(Z)은 서양고대철학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역자가 감내했어야 했을 노고가 어땠을까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번역과 각주 부분만 헤아려도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대작을 몇 페이지 분량의 서평으로 충분히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 검토는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겨두고, 이 글에서는 본 역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특징은 전통적 철학 용어들을 대체하는 참신한 번역어들의 도입이다.

---

1) David Ross

역자가 시도한 색다른 번역어들은 언론에서까지 화제가 되었다.<sup>2)</sup> 『형이상학』을 펼쳐두고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 이론을 찾아보고자 했던 독자는 그 이론이 풀-밀감 이론이 되어 있음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동물-사람 간의 관계는 유(類)-종(種) 관계가 아닌 무리-풀 관계가 되어 있고, ‘본질’과 ‘기체(基體)’는 ‘있다는-것은-무엇-이었는가’와 ‘바탕이 되는 것’라는 구(句)로 대체되고 있다. 때로는 신조어가 등장하기까지 한다. pathos가 ‘겪이’로 hexis가 ‘갯이’로 번역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색다르고 과감한 시도를 접하면서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물음은 역자가 왜 이런 과격적인 번역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역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채택한 번역의 원칙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글의 이해에 중점을 두어 쉽고 친근한 표현을 써서 옮기려 하였다.” “기존의 일본식 한자 용어들을 쉬운 한글 개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sup>3)</sup> ‘형상’, ‘질료’, ‘유(類)’는 어렵고 낯선 일본식 한자 용어인 반면, ‘풀’, ‘밀감’, ‘무리’는 쉽고 친근한 한글 용어라는 사실이 역자의 번역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번역어의 쉬움과 친근함은 사실 생각만큼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그것이 궁극적으로 텍스트 이해의 용이성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역자의 번역 중의 일부이다. “무리가 무리의 풀들과 따르는 결코 있지 않다면, 또는 그것이 있는데 오로지 밀감으로서만 있다면 {왜냐하면 목소리는 무리이자 밀감인데, 차이성들은 이것으로부터 풀들을, 즉 자모(의 음)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p333).<sup>4)</sup> 반면

2) 그 기사 중 하나의 제목은 “‘밀감’이란 철학용어 들어 봤는가?” ([조선일보] 2007. 11. 20)였다.

3) 『형이상학』, p24.

4)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인용하는 표준적 방식은 소위 Bekker

일본식 한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유(類)가 유(類)로서 (포함하는) 종(種)과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있는데 질료로서 있다면 {소리는 유(類)이자 질료이며, 종차(種差)들이 이것으로부터 종(種)인 자모를 만들어내니 말이다}…” 『형이상학』을 읽게 될 독자들 중 다수는 아마도 후자의 번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 종, 종차 간의 상호관계를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최소한 전자의 번역이 후자보다 더 잘 이해된다는 말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번역 텍스트의 의미가 ‘꿀’이나 ‘무리’ 같은 단어들—그것이 그 자체로 아무리 쉽고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의 일상적 의미만 알아서는 전혀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텍스트에서 그 단어들은 단순한 일상어가 아니라, 특수한 맥락에서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 전문 용어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용법으로 사용된 ‘꿀’과 ‘무리’는 더 이상 쉽고 친숙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위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들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용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고, 독자는 그것을 따로 배워야만 한다. 반면 ‘종’과 ‘유’는 그러한 특수한 의미를 담기 위해 도입된 전문 용어이다. 그리고 논리학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우리는 『형이상학』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에게 그 둘의 의미와 관계는 매우 친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역자가 생각하는 쉽고 친숙한 단어들은 텍스트를 더 어렵고 낯설게 만들 수가 있다.

‘꿀’과 ‘무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철학 용어들은 많은 독자들의 선이해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번역은 독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나 추가적 해석의 부담을 지

---

Number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글은 엄밀히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작의 번역서에 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번역서의 페이지수를 밝히도록 한다.

우게 된다. 물론 그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번역어가 요구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본식 한자용어가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주어진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할 수 있거나 (understanding을 오성(悟性)으로 번역하는 예 등), 한자어의 의미가 쉽게 포착되지 않는 경우 (accidental property를 우유적(偶有的) 속성으로 번역하는 예 등) 때문이다. 하지만 ‘형상(形相)’이나 ‘질료(質料)’와 같은 용어들은 적어도 그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가 새로운 번역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데에는 뭔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용어와 (당시의) 일상어 간의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번역본으로 읽게 될 때 놓치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그가 다루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실은 그 모습만으로도 독자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친숙한 단어들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eidos’와 ‘hylē’는 ‘형상(形相)’과 ‘질료(質料)’처럼 태생적으로 철학 용어였던 것이 아니라, 각각 모습/외양..., 나무/목재...등을 의미하던 일상적 표현이었다. 역자는 이런 일상어와의 연관성을 번역어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이 역자가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바라면,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용어들에 대한 전통적 번역들은 고전 희랍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현대 유럽 언어들로, 현대 유럽 언어들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거쳐 한국어로 수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것들이다. 예를 들어, 원인(原因)으로 통상 번역되는 희랍어 ‘aitia’는 라틴어의 ‘causa’, 영어의 ‘cause’, 한자어 ‘原因’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aitia’가 원래 가지던 의미 영역의 축소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aitia’는 원래 ‘…의 탓으로 돌리다/ 고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aitiaomai’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aitia’는 그래서 ‘…탓’ 혹은 ‘…때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causa’, ‘cause’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우리가 보통 작용인(efficient cause)이라 부르는 것으로 한정되게 되면서, ‘cause’나 ‘원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를 번역하면 기이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이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의 원인(cause)이라는 말은 기이해 보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건강은 분명 운동을 하는 것의 aitia이다. “왜 운동을 하는가?”를 물었을 때 “건강 때문에”라고 답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답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가 원래 가지는 폭넓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어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된다. ‘이유’, ‘까닭’, ‘탓’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론이 무엇이든, 그 답은 ‘원인’처럼 그 의미영역이 고착화되어있는 전문적 용어가 아닌, 좀 더 탄력 있고 말랑말랑한 일상 언어여야 할 것이다. 역자의 참신한 여러 시도들은, 넓게 볼 때,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전학자치고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1) 어떤 단어에 대해 실제로 새로운 번역어를 시도할 것인가 하는 것과 (2) 우리말에 딱 들어맞는 번역어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두 문제 모두에서 역자는 매우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역자는 예를 들어 ‘원인’이라는 번역어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반면, ‘형상’, ‘질료’, ‘종’, ‘유’와 같은 번역어를 새롭게 고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것처럼 후자의 예들은 특수한 철학적 의미가 의도된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상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들을 대체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어렵고, 대체된 일상어 번역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역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pathos’를 ‘겪이’로 번역한 것이 그 예가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논의해볼 점들이 있다.

‘pathos’는 문맥에 따라 ‘성질’, ‘상태’, ‘감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 또 통상 그렇게 문맥에 맞추어 다양하게 번역된다. 역자는 이 단어에 대해 ‘겪이’라는 신조어 번역어를 시도하고 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식이 필요했을까? ‘겪이’는 신조어이므로, 이것이 ‘성질’보다 친숙한 단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pathos’가 등장하는 모든 예들에 일관된 번역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희랍어 단어-한국어 단어의 일대일 대응은, 특히 폭넓은 의미영역을 가지는 단어들에 있어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이고, 역자도 많은 경우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겪이’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역자에 따르면 그 답은 ‘겪이’가 ‘pathos’와 동사 ‘paschein’의 관계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는 것과, ‘겪이를 겪다’란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sup>5)</sup>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질’이라는, 내용상으로도 적합하고 그 자체로도 친숙한 단어 대신 ‘겪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야만 할 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겪이’가 낯선 신조어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사실 약간의 희랍어 지식이 있는 독자라면 ‘겪이’가 동사 ‘paschein’ 때문에 등장한 번역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paschein’의 기본적 의미가…을 겪다/당하다/…이고, ‘paschein’과 ‘pathos’가 동족어이니, ‘겪음’의 명사어로 ‘겪이’가 나왔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역자가 ‘겪이’라는 번역어를 생각해내게 된 사고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배경지식 때문에, 번역어로서 ‘겪이’가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예

5) 『형이상학』 p.250, 주 202.

를 하나 들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흠이나 짝이 수가 수로서 가지는 고유한 pathos라고 말한다.<sup>6)</sup> 역자는 여기에서의 ‘pathos’를 ‘겪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독자가 ‘겪이’가 가지는 생경함을 극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겪이’는 좋은 우리말 번역어는 아니다. 그것이 좋은 번역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가 흠이나 짝을 겪는다.”라는 말이 우리 일상어에서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 우리말의 ‘겪다’의 의미영역에 잘 맞지 않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즉 위의 맥락에서의 pathos는 우리말의 ‘겪다’의 의미영역 안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겪이’는 우리말 번역어로서 결격사유를 갖는 것이다.<sup>7)</sup>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paschein’의 의미를 알고, 이 단어가 어떤 것이 놓인 상태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수가 흠이나 짝을 겪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자연스러움은 번역어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역자의 의도와 사고과정을 감안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움일 뿐이다.

‘겪이’의 예는 역자의 번역 방침이 갖는 특징과 난점을 잘 보여준다. 역자는 그 뿌리까지—예를 들어 문법적 파생관계까지—원어와 일치하는 번역어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랍어와 21세기 한국어 사이에 놓인 간격을 생각할 때, 그러한 안성맞춤의 번역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역자는 그런 경우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내는 일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희랍어에서의 계통발생을 우리말에서 그대로 반복해야 할 필연성도 없고, 그것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겪이’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용례를 섬세하게 검

6) 『형이상학』 p.155.

7) 반면 “수가 흠이나 짝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따라서 “흠이나 짝은 수가 수로서 가지는 성질이다”는 좋은 우리말 번역이다.

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도는 적절치 않은 번역어를 생산해낼 위험이 있다.

역자가 채택한 번역어들을 일별해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자가 순우리말 번역어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한자어나 순우리말 이나의 선택은 그 자체로 선악을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역자의 구체적 선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코멘트가 가능할 것이다.

어떤 경우 기존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을 낳고 있다. 역자는 기존의 ‘제일(第一)···’ 혹은 ‘일차(一次)···’대신 ‘ 으뜸···’을, ‘제이(第二)···’, ‘이차(二次)···’대신 ‘버금···’을 번역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한 논의는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p295, 296, 297에 등장하는 ‘ 으뜸으로’라는 번역은—역자가 ‘ 으뜸’을, 순서가 강조된 ‘제일’과 달리, 우위나 우월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sup>8)</sup>—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라는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다.

때로 역자는 매우 자명하고 사소한 경우들에 순우리말 번역어와 한자어 번역어들을 병기하고 있다. 다음이 그 몇몇 예들이다. 곁핥기로 (피작적으로) (p.98) / 없애기(파괴하기) (p.134) / 사라지는(소멸하는) (p.134) / 예를 들(예시) (p.270) / 닿음(접촉) (p.370) / 같은 때에(동시에) (p.467) / 섞음(혼합) (p.616) / 나란히 놓음(병렬) (p.617). 이 예들에서 괄호 밖의 단어는 순우리말이고 괄호 안의 단어는 한자어라는 사실 이외에 둘 사이는 아무런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한다고 해서 특별히 괄호 밖의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혹 괄호 안의 단어가 괄호 밖의 단어보다 더 분명한 의미전달이 가능한 단어라고 역자가 판단했다면, 그냥 그 한자어 단어만을 번역어로 사용하면 그만이지 아니었을까?

괄호의 사용과 관련해 한 가지 사소한 불만을 덧붙인다면, 역자가 지나치게 많은 괄호를, 너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독

8) 역자의 『범주론·명제론』 번역 p.39, 주 44를 볼 것.



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그 괄호들은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허들을 넘게 만듦으로써,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막고, 불필요하게 험뎌이게 만든다.<sup>9)</sup> 꼭 필요하지 않은 괄호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해설은 가급적 각주로 해결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떠한 비판도 역자가 성취한 바의 가치와 의미를 바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역자는 쉬운 길 대신 굳이 어려운 길을 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과 씨름한 것이다. 이제 역자가 제기한 문제의 의미와 정당성을 검토하는 일은 한국 고전 철학계 모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전현상 / 경희사이버대학교

9) 다음은 하나의 문장 안에 다양한 용법의 괄호가 11개나 포함되어 있는 예이다. “구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입체도형)’이라면, 이 정의(定義)의 일부(, 즉 도형)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구)이 (들어) 있는 것’(무리, 類)이며, 또 다른 일부는 ‘그것(무리) 안에 생겨나는 것(성질)’(차이성, 種差)이며, 전체(인구)는 (이 둘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이는 청동구에 상응하는 것이다.”(p.313)